

남원시, 저수지정비사업 '탄력'

78억원 확보... 220개소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 위한 종합적 개발 추진

남원시는 운봉을 행정계와 주천면 용궁2계 등 3개 지구 일원에 노후된 저수지 정비를 위한 사업비 국·도비 55억원 지방비23억 총 78억원을 확보하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예산확보로 재해취약지구 재난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남원시에 소재한 저수지는 총220개소로 하천에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중요한 용수원으로 이용된다. 풍부한 수량확보로 인해 안전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남원시는 노후된 저수지를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온 결과 D등급 이하

의 관정을 받은 저수지는 11개소로 이중 4개소는 작년부터 17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국비 확보에 따라 행정계등 3개소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저수지는 안전점검결과 D·E등급 관정을 받은 저수지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최종D등급 이하로 관정된 저수지에 한해 시정이 지정한다.

남원시는 저수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국비확보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남원시는 재산, 인명 피해를 줄이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 공중

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품질된 농업인들의 영농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3년간 국비 확보에 매진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어 금년에 아영면 청계제 등 4지구에 6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운봉을 행정계 등 3지구에 7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등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자연재난으로 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농촌축제 지원사업 대상마을 선정

두월리·둔덕리 등 2곳 각각 2천만원 지원받아

임실군이 농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7년 농촌축제 지원사업 대상마을 선정심사'에서 삼계면 두월리(김재성 축제위원장)와 오수면 둔덕리(둔대기 마을, 이운재 위원장)가 24일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최종 선정된 6개 축제에서 유일하게 군에서 두 개 마을이 선정돼 각각 2천만원을 지원받아 농촌축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월마을은 '달천방 들노래' 구전농요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3년 연속 선정돼 대내외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최근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성공한 농촌축제로 거듭났다.

또한, 둔대기마을은 군에서 시행하는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둔대기 백중절, 내 고향이 최고야' 축제를 내

시작한 것을 계기로 선정됐다.

특히,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창고에 목혀져 있던 마을깃발(용기(龍旗), 제작 1933년도 추정)을 찾아 공동체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현시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편, 두월마을 '달천방들노래한마당' 축제는 내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고, 둔대기마을의 '둔대기 백중절, 내 고향이 최고야' 축제는 내년 9월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작은영화관 기획전 열려

11월 4일

영화를 보다, 문화를 누린다. 감동을 나누다! 2016 작은영화관 기획전 '이 24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금, 토, 일을 제외한 10일간 임실 작은영화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임실한마당작은영화관이 주관하는 '2016 작은영화관 기획전' 임실'은 7개 섹션, 13편의 영화를 2개관에서 총 28회 상영하며, 5차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상영작품은 '극장판 프랭키와 친구들:생명의 나무', '어린왕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왕:단팥 인생 이야기', '만화로 보는 빈곤의 역사', '4등', '마술피리', '문소리 단편 3부작', '박쥐' 등 13편이 무료로 상영된다. 또한 영화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영화 푹푹 내가 만들었어요!', 미술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감성표현능력을 높이는 '힐링시네마: 그림 속 내 마음 이야기' 등 교육 프로그램이 영화 상영 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다양한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전국 작은영화관에서 개최되는 영화 축제"라며, "다채로운 상영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의 또



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기획전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실한마당 작은영화관(☎644-7050) 또는 홈페이지(http://imsilcinema.co.kr)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오색빛깔 덕유산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에 단풍이 오색빛깔로 아름답게 물들었다. 이로 인해 보다 더 수려한 경관을 뽐내고 있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MJ SH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남원시, 청탁금지법 수첩 배부

해설·사례 정리한 휴대용 수첩 제작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청탁금지법의 해설과 사례를 정리한 휴대용 수첩 2,000부를 제작해 시 산하 전 공직자에게 배부했다.

남원시 공직자들의 높은 관심도와 실천 의지를 반영하여 '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으로 이름 붙인 이 휴대용 수첩은 ▲부정청탁의 대상 업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제의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처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대응 ▲관련 사례 등 청탁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총 30페이지 분량의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꺼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규 공무원 임

용 시에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수첩으로 묶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방지과 청렴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매뉴얼 책자를 발간·배포하여 법률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시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간부공무원 서약식, 전 직원 및 이·통장 교육 등 적극적으로 발 빠른 행보를 해 오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농기계 임대사업장 방문

사업추진사항 등 보고

박우정 고창군수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박군수는 24일 해리면 일원에 신축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 현장'에 방문해 사업추진사항 등을 보고 받은 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축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원거리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총 19억원을 들여 보관창고를 비롯해 임대농기계

를 마련하고 올 연말 조성 완료될 목표 공사 진행 중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준공되면 무장·공음·상하·해리·심원면 등 고창군 서부권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농기계 운반시간 절약과 농작업에 방편해 사업추진사항 등을 보고 받은 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축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원거리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총 19억원을 들여 보관창고를 비롯해 임대농기계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고품질 맥류 생산 현장지도

임실군은 고품질 맥류(보리, 밀) 안정 생산을 위해 적기 적량파종, 종자소독 등 재배기술 중점지도 기간을 설정하고 홍보 및 현장지도에 발 벗고 나섰다.

오는 30일까지 맥류 파종 적기를 잘 지켜야 적정 엽수(5~6매)가 확보돼 겨울철 동해를 줄이고 안정생산이 가능하며 파종 한계기는 내달 5일까지 만파(늦은파종)시 동해 피해가 발생된다.

파종량은 10a당 15~18kg이 적당하고 시기가 늦어질 경우 종자량을 20~30% 늘려 파종하며 월동력 향상을 위해 인산, 칼리, 퇴비를 증시한다.

맥류 곰팡이병, 감부기병, 줄무늬병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해 파종 일주일전 종자 15kg에 카보람 분제 40g의 분의처리를 실시한다.

또한, 독새물 등의 동계잡초 방제는 파종 후 3일 이내 뷰타클로르유제, 리뉴론 수화제, 펜디메탈린유제를 뿌리고 파종 후 배수구 정비 철저히 습해로 인한 생육불량을 예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맥류 적기파종으로 적정 엽 수 확보와 내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적기에 파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군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640-2782~4)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민위원회, 공식 일정 마무리

남원시(시장 이환주)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활동이 24일 대표회의를 끝으로 2016년 모든 공식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 했다.

지난 7월 5일 27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8월에는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 예산이라는 주제로 실무 경력이 많은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의 강의로 예산편성절차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10월에는 공모된 제안사업 72건에 대해 각분과위원회 별로 현지 방문을 하여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번 대표회를 통해 의견을 최종 확정하고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대표회의 이후 시민위원회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시의회에서 의결된 의견서를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예산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참여한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중국 빈주시, 교류방안 모색

임실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산둥성 빈주시 조경평 부시장과 관계자 등 7명은 농업·낙농 분야 협력모색과 군 주요 시설 시찰을 위해 24일 임실군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오는 2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빈주시를 임실군이 초청해 농업,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 계획과 우호증진 및 경제적 교류방안 모색 등 활발한 안건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빈주시는 군의 치즈 및 고추산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 치즈제품을 비롯한 농·특산물 판매망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더불어 앞으로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방문단은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신령우 부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마치고 치즈농협, 치즈테마파크, 동부권 고추주식회사를 견학한 뒤 일정을 마쳤다.

신령우 부군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방정부간 우호증진과 상호교류가 더욱 활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